

꿀벌은 어디에? 미국 유럽에서 집단 실종 심각

미 국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돌연 꿀벌이 없어지는 원인 불명의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Colony Collapse Disorder(CCD) 「봉군붕괴증후군(蜂群崩壊症候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현상은 적어도 미국 본토 26개주에 퍼지고 있는 것 외에 유럽의 영국이나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도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미연방 의회 하원에서는 지난 3월 29일 공청회가 열려 50~90%의 기능벌이 행방불명되어 있다고 양봉 농가는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꿀벌에 의한 수분으로 연간 150억 달러에 이르는 과일이나 채소가 수확되고 있다. 이대로는 개화기를 맞이한 과일이나 채소의 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매우 염려하고 있다. 벌써 꿀벌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상승도 걱정되고 있다. 원인에 대

해서는 감염증이나 잔류농약, 유전자조작의 작물,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이상 등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지만 아직 불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Landau대학 연구팀이 16일까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꿀벌의 방향감각에 이상을 일으켜 최대 70%의 꿀벌이 상자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영향에 의한 가능성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지만 연구는 한정적으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아직 「봉군붕괴증후군」이 확인되어 있지 않았다.

기능벌의 집단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직장방패인가, 아니면 휴대전화의 전자파인가는 아직 모르지만 자연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바이오 연료, 나라 격차 크게 해

2007년의 신년연설로 미 부시대통령은 “10년 동안 자동차 연료의 20%를 바이오 연료로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2006년 생산량의 약 20억kl 생산으로부터 역산하면 현 경지면적의 30%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충당하게 된다. 도저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먹거리의 안전, 추궁하지 않게 됨

바이오연료 생산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EU조차 2020년까지 수송연료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예측 불허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연료가 투자대상이 되어 일시적으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그것은 보도를 염두에 둔 단기적인 현상 즉 에탄올버블이다. 그것이 에탄올 생산의 코스트를 왜곡하게 된다. 건전한 발전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이 될 뿐으로 식료가 되지 않는 옥수수의 생산은 어떻게 행해지게 될까?

먹거리의 안전이 추궁당하지 않는 옥수수의 생

산은 당연히 생산성 중시의 재배체계가 된다. 그렇게 되면 화학비료의 사용에 의해서 토양 침식이 진행된다. 또한 무원칙적으로 사용될 농약의 우려와 GM(유전자 변환) 종자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될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환경대책 아닌 단순한 중동대책

현재 「온난화」라고 말하고 있는 현상은 정확하게는 「기상이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상이상이 사람이나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은 온난화보다 홍수 등의 재해 증가와 농산물 수확의 불안정화이다.

바이오연료의 개발이 화석연료로부터의 탈의존, 온난화대책, 농산물의 유효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일정한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업 폐기물이나 목재 등 셀룰로오스로부터의 에탄올 생산도 아닌 미국의 바이오 연료 장려 정책은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석유 산유국의 상대적인 저하를 느낀 것이며 환경대책은 아니다.

바이오 연료가 가격의 문제와 안정공급이 주목적이라면 농산물인 에탄올은 기본적으로 기후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생산 형태라면 지속형의 작부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어 농지의 고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이오연료는 온난효과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이미지는 있지만 상기와 같은 작부와 종류에 관련되는 에너지는 거의 상쇄된다.

악화되는 식량사정

미국의 적극적인 바이오연료 정책으로 이미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미국에서는 수출용의 옥수수가 최근 몇 년간 중서부로부터 거의 소멸한다는 예측이 있다. 식량안전보장 등 수출국에서는 관계없는 이

이야기인 것이다.

일본은 연간 3000만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그 80%는 미국)하는데 그중 2000만톤은 가축용이다. 일본 등 선진국의 많은 가축은 대량의 곡물을 먹여서 고기나 알,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집약적인 사육으로 높은 생산을 강요당해 과식과 비만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1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 선상에 있다. 그 한편으로 선진국의 가축은 고가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식 현상에 처해있다. 지금에 와서 더욱이 개조되는 차에 곡물을 주는 것이 윤리적인 허용범위를 넘는 것이 아닐까?

빈곤국가의 국민은 선진국의 가축이나 차에도 미치지 못할 존재로서 구현하는 모습은 비정상적이지 아닐까? 이러한 일이 선진국의 식생활 문화이며 과학기술이라면 가난한 국가의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 것인가 「비만 인구가 기아인구를 넘었다」(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베리 홉킨 교수 2006년)는 상황에 있다. 곡물가격의 높은 상승은 결과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의 주인으로부터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다.

추궁당하는 것은 유효이용

생각해야 할 것은 연료효율이 뛰어난 차의 엔진의 개발이며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의 효과적인 개발에 있다. 이러한 기술을 소홀히 한 채 옥수수를 투기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를 볼 것도 없이 자극히 정치적인 바이오연료대책이며 환경대책과는 무관한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자세는 부질없이 세계의 에너지 정세와 곡물시장과 식량사정을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의 개발은 폐기농산물의 이용이나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셀룰로오스에 의한 생산이 주체가 되어야만 의미가 생긴다. Y